

월요광장

의로운 의복 생활을 바라며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끼기도 전에 갑자기 옷깃을 여며야 하는 날이 왔다. 여름옷이 빠곡히 걸려 있는 정선 사나운 옷장을 마지못해 정리할 때가 왔음을 느끼는 순간이다.

나는 늘 의복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엄마 옷장을 넘보았다. 1983년 교복 자율화를 맞은 축복(?)받은 패션 키즈 세대답게 중학생이 되자 80년대 패션 성지 명동에 위치한 '빌리지, 포스트카드, 명동의 류' 등 당시 '핫플'(Hot place)이던 의류 매장을 들락거렸다. 그곳에서 언니 오빠들 사이를 비집고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며 옷을 사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그 후 어디서고 옷을 발견하는 힘은 무럭무럭 커 갔다. 전국 곳곳으로의 원정은 인도의 길거리나 이탈리아 골목길의 작은 공방과 상점 등 국외로까지 뻗어 갔다. 가는 곳마다 나름의 문화 다양성을 핑계로 옷을 사곤 했다. 게다가 의복에는 인류학과 역사·지리 그리고 과학과 미학 등 그야말로 실용에만 그치지 않은 광범위하고 숭고한 학문이 모두 담겨 있다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다양한 의복 생활을 즐겨왔다. 결국 나는 몇 해 전부터 해외

패션물을 비롯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브랜드들의 옻까지 스마트폰에 깔아 놓고 전 지구적 패션 트렌드를 쫓아다녔다.

그런 내게 서쪽에서 해가 뜰 만한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야말로 COVID19로 답아 두기 바빴던 방구석 소핑 장바구니를 모두 비우고 바른 의복 생활을 해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런 신통한 효험은 영화 한 편을 보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감독 앤드류 모건(Andrew Morgan)의 '더 트루 코스트'(The True Cost, 2015). 패션 이면의 노동과 환경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이 영화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사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가혹하게 노동을 착취하는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로 환경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들 낱알이 보여 준다.

모두들 한 발쯤은 갖고 있을 법한 패스트 패션은 빠른 조리 과정을 거친 패스트푸드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는 유행에 발맞춰 저가의 의류를 빠르게 대량 생산하고 판매하는 패션 상표와 그 업종을 의미한다. 스파(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자라, H&M, 유니클로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다. 트렌드를 앞세우며 새로운 상품을 엄청난 양으로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류 폐기 문제가 환경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이들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이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지속 가능'(sustainable), '컨셔스'(conscious: 의식 또는 자

각)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실제 영화에서 다른 문제들을 보완한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옷의 사용주기를 더욱 짧게 만들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시대를 반추해 온 패션(fashion)은 의복의 유행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패션은 행위나 활동하는 것 또는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팩티오'(factio)라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그리하여 사전적 의미에서 유행하는 '양식, 방식, 형, 관습, 습관' 등을 아우르는 실로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패션이 곧 라이프스타일인 것이다. 따라서 패션은 단순히 유행을 좇아 더 자주 사고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는 행위이다.

그동안 못 미더워하던 가족이 나의 새로운 의(衣) 생활 태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떤 옷을 사고 입는지는 모두에게 있어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는 옷을 사면서 누군가의 노동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지구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옷장을 열고 갖고 있지 않은 옷을 찾기보다는 예전부터 입어 온 옷을 땀시 있게 다시 입어 보는 것은 어떨까?

요즘 추세대로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이라면 환경운동은 더 이상 운동이 아닌 우리의 생활이자 일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유행이 좀 지난 옷을 입는 것이 오히려 유행을 뛰어넘는 의로운 의복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고

출산과 함께 찾아오는 행복



강희욱  
광주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위원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장

행복의 첫 출발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의 열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으로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심도 있고 체계적인,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시급한 대책이 절실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0년 신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전년도인 2019년보다 3.9만 3000명이 감소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92명에서 2020년에는 0.84명으로 0.08명 감소한 상태다.

지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둘째, 셋째는 낳지 않으려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결혼 연령을 살펴 보면 남자 33.2세 여성은 30.8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

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매우 낮아 저출산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 중 38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1.36명이며 스페인은 1.23명이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3.01명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출산율은 2.1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구 통계 발표 내용을 보면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가구는 증가하고 있어,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즉 개인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결혼 연령의 상승, 육아 및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산물이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 양성 평등 문화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보육 시설의 양적·질적 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출산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필요하다.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다. 자녀 출산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과 더불어 사회 집단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력과 경쟁력이 증가되며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건강한 가치관이 다.

저출산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뿐만 아니라 소비 및 투자 위축에 따른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감소,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 때문에 국가의 활력이 떨어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정서적 병폐도 수반한다. 즉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모니와 동료 의식 등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 의식, 울력·협력 등 배려하는 미덕이나 섬김의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산은 생명을 생산하는 가장 보배롭고 신비스러운 능력이다. 어린아이들이 티 없이 해맑게 뛰놀며 자라는 모습 속에서 환희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행복의 시작은 출산으로부터 찾아온다. 출산이 주는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다.

기고

집중과 단절, 별을 올려다보는 밤



이강선  
호남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는 빛 속에서 살고 있다. 별빛도 그러하다. 낮이건 밤이건 별빛을 받고 있으나 우리가 별빛을 느끼는 때는 오직 밤뿐이다. 더 정확히 말해 밤은 태양빛을 가림으로써 별을 올려다볼 기회를 제공하고 별이 거기 있음을 느끼게 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주변의 온갖 소음에서 단절되었을 때 느끼는 음악이 특별하듯,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인공의 빛들로부터 내 의지로 벗어나 하늘의 별로 주의를 돌렸을 때 느끼는 감동은 특별하다. 단절은 곧 집중이다.

단절하면 집중하는 대상은 선행해질뿐더러 몸시도 빛난다. 선은 놀랄 정도로 명확해지고 음영이 짙어지며 색채는 단일하지만 찬란해지는 동시에 다양하게 일렁거리니 집중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를 제대로 깊이 자세히 온전히 보려는 것. 망원경은 그런 의도를 정확히 충족시킨다.

최근 천문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마지막 행사가 별 보기였고 일행은 옥상으로 이동했다. 밤이 내린

옥상은 단조로웠다. 로보처럼 보이는 망원경만 몇 대 보일 뿐, 다른 것은 없었다.

북쪽, 길 건너 아파트가 천문관보다 높았고 동쪽으로 상가 건물들이 보였다. 남쪽으로는 근린공원의 나무들과 건물들이 보였으니 결국 천문관은 평지,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관계자는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서 북극성부터 설명을 시작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집단이 역할을 해왔던 그 별, 인공의 빛이 하늘을 침범해 인간과 자연을 차단하기 전까지 인간들이 사막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보며 방향을 잡았던 별. 그리고는 북두칠성.

다소 흐린 날이었다. 일행은 그가 가리키는 곳을 좇아 밤하늘을 훑고 올라가는 그 빛의 길을 올려다보았고 그것만으로도 뿌듯했는데. 마침내 진정한 놀라움이 왔다.

망원경 안을 가득 채운, 아니 초점이 맞는 순간 시야를 가득 채운 별. 별들은 찬란하다고 해야 옳았다. 그리 스인들이 왜 별자리를 만들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다. 그들은 신비를 보았던 것이다.

처음으로 목성의 네 위성을 보았다. 그리고 목성의 중심을 가로지른 줄무늬. 다음은 토성, 토성을 둘러싼 고리는 여느 보석 못지않게 찬란했다. 어디 그뿐이라. 이중 성단. 율베미 성자, 마지막으로 달을 보았다. 달은 배구공만큼이나 컸고 꺾뎠기 안에 전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투명했다. 달은 몸집 전체에 빛으로 된 줄무늬를 지니고 있었고 그 무늬는 군데군데 점점처럼 두텁게 빛났으며 그 안에 무언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옥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주 어디인가에 있었다. 별을 올려다보고 사랑하고 절망하던 모든 이와 더불어 있었다. 그 세계에는 어린 왕자가 있는 사막이 있었고, 웃음소리 청량한 우물이 있었다. 배두인의 숨죽인 웃음과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던 아버지의 정원과 물안개 휘돌던 호수와 아득한 도시의 아침, 그 모든 것이 있었다. 비밀과 환상과 기억, 그리고 밤과 열매든 지 헤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달에 분화구가 있고 토성에 고리가 있으며 목성에 네 개의 위성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일상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별을 보기 위해 아이와 함께 천문대들을 찾아다니던 겨울밤, 영하 십 몇 도를 내려가는 추위에 공공 열어서 유성우를 보겠노라고 하늘을 올려다보던 순간들. 모임 내 천문학자의 지시를 따라 목성과 토성을 올려다보던 추석 무렵도 일상에 묻힌다. 그런 순간들이 다시 별을 올려다보는 순간 뒤어온다.

그 밤의 별은 존재에 대한 소망에 물을 부었다. 아직은 살 만한 삶이라는 소망에 희망을 부어 넣었다. 때로 단절은 삶을 무한히 풍성하게 해준다. 별을 들여다보면 그 밤처럼.

社說

일상 회복 여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오늘부터 마침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1단계 방역 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 체계가 그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잇그제 확정 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에 따르면 1단계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4주간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진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과 플라텍·무도장은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식당·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네 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방역 패스'제 도입에 따라 노래연습장·복합주점·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치매시설

등의 환자와 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행사와 집회 인원도 늘어나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일상 회복이 돌발 변수 없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내년 1월에는 시설 운영·행사·사적 모임 등의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어렵사리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흑역 방역 의식이 해이해지면 완전한 일상을 되찾는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상당수 국가들은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도 지난 30일 확진자가 53명까지 급증했다. 자신과 가족·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 미접종자들은 접종에 적극 나서고,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등 단계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I 중심도시 광주' 지역경제 도약 이끈다

정부가 광주를 '국가 AI 혁신 거점'으로 선언했다. 정부가 광주를 우리나라 대표 인공지능(AI) 선도도시로 인정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각 권역별 강점을 살려 AI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17개 시도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AI 혁신 거점으로 지정해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광주가 최첨단 국가 AI 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까지 1단계로 현재 구축 중인 '국가 데이터센터'와 실증 장비 등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 전국 유일의 '국가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이며, 따라서 AI 중심도시 광주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광주 AI 집적단지의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집적단지 조성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을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부족한 AI 인재 육성을 위해 탄생한 광주 AI사관학교가 확대되고, 기업·인재 유치, 해외기업·연구자와의 공동연구·사업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도 집중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이라는 민선 7기 광주시의 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사실 광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불모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 만큼 광주시는 이제 국가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지역 대표 산업인 자동차·에너지·농식품·헬스케어·콘텐츠 융합 산업을 묶어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 상가 인테리어 철거 현상이 요즘엔 자주 보인다. 아침저녁으로 도심 변화가를 걷다 보면 철거 작업자들이 가게 내부를 뜯어내 폐기물 처리함에 집어넣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되던 때 인테리어 공사까지 새로 하며 신장개업을 했던 한 음식점은 지난 2년 내내 거의 가게를 열지 못하더니 급기야 한 달 전 폐업을 했다. 서너 평짜리 크지 않은 규모여서 '없는 돈을 짚내어' 오픈한

생계형 매장이 분명해보

었는데 '초라하게 뜯겨나

가는' 가게를 지켜보며

속을 태울 주인공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인근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이 1년여 전 제법 큰 규모로 시작을 하기에 "브랜딩도 있고 하니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한데 얼마 전 가게 앞을 지나다 보니 매장 집기를 들어내고 철거하고 있어 딱딱했던 느낌도 생긴다.

동병상련이랄까.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수년간 한 푼 두 푼 애써 모으고, 사정사정해 가며 겨우 대출한 돈마저 날려 버린 우리 이웃들은 지금 어떤 심경

일까? 이제 어디에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며, 사랑하는 가족들 부양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나?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나?"라는 의문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남 탓 하는 건 질책이지만, 아무리 죽음을 다해 움을 써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기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을

터다. 특히, 민생을 챙기

려는 정책 경쟁 대신 상

대를 향한 비난과 중요

로 범박이 된 막말 경쟁이 기승을 부리는 대통령 선거판을 지켜보면 '정말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는지, 희망을 걸 수 없는 건지' 한숨만 나올 지경이다.

"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며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낯설기만 하는 요즘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